

“하아... 세상은 참 밝은 곳이다.”
내가 처음으로 만난 세상은 그랬습니
다. 그런데 웬걸, 한참이 지나자 세상은 조
금씩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한순간에 세상은 아주아주 깜깜해져 버렸
습니다.

“그럼, 세상은 깜깜한 곳인가?”
이런 일을 자주자주 겪으면서 나는 이
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세상은 반 밝고 반 짙은 어두운 곳
이구나.”

내가 처음으로 세상 구경을 한 때는 지
난 여름입니다. 큰물이 났을 때였어요.
“우르릉 풍광” 하면서 하늘에는 불벼락이
치고, 장대같은 비가 쏟아지면서 온 땅이
물결로 출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골짜기마다
쏟아지는 물결기는 마치 사자가 머리털을
치켜올린 것 같았어요. 소리는 또 얼마나,
무서웠는지. 물 속에서 바위가 부딪치면
서 ‘꾸웅—쿵’ 하고 소리를 지를 때는 금
방이라도 큰 일이 날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운이 좋은 편인가 봐요. 그
무시무시했던 물 덕분에 세상에 나오게
되었으니까요. 사실 전 그때까지 땅 속에
서만 살았답니다. 백 년 아니 천 년도 더
넘었는지도 몰라요. 이미 오래 전에 즐긴
는 썩어서 사라져 버렸고, 뿌리인 저만 땅
속에 남아 있었던 거지요. 그러다 지난 여
름 큰 물을 만나 산 기슭이 무너지면서 세
상 구경을 하게 된 거랍니다.

비가 그친 세상은 너무나 아름다웠습니
다. 세상의 모든 초록색을 불러 모아놓은
듯한 나뭇잎, 그 위에 올라앉아 구슬처럼
반짝이던 물방울.

그때부터 나는 조금씩 세상을 알게 되
었습니다. 단풍이 들고, 잎이 지고, 눈이
내리는 걸 보면서 사계절이 있다는 것도

봉축동화

아기 부처님과 도둑

윤제혁(본지 취재 2부장 · 동화작가)

물들이고 말았습니다.

그 뒤로도 스님은 산책을 하실 때마다
저를 찾아 오셨습니다. 뭐가 그리 궁금하
신지 이리보고 저리보다가 쓰다듬기도 하
셨습니다. 그러시다가는 갑자기 ‘이렇게
예쁜 아기 부처님이 어디서 무얼 하시다
가 이제야 오셨을까’, 하시면서 저를 덤
업고는 절로 내려 가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운수만’이라는 조그
만 산 속 절 마당의 한 귀퉁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들 저를 좋아했습니다. 어떤
아주머니는, “어머, 어쩜 이렇게
아기 부처님과 꼭 닮았을까” 하고
말하기도 했고, 또 어떤 할머니는
저를 볼 때마다 두 손을 모으고 절
을 하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얼마
나 얼굴이 화끈거리는지...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스
님의 엄불 소리도 여느 때와는 달
랐습니다. 간간이 애써 참는 듯한
울음 소리가 들리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한 아이의 49
제를 지낸 것이라고 합니다.

세 살이나 네 살쯤 되었을까? 사진으로
본 아이의 모습은 그랬습니다. 나도 모르
게 왠지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사람
이 죽는다는 게 왜 슬픈 일인지 아
직은 잘 모르지만, 그 아이의 사진
을 안고 어깨를 떨쳐주는 엄마의
모습은 참 슬펐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안 일인데요, 사
람은 죽어서 하늘나라로 가기 전
에 49일 동안 열라대왕이라는 분
앞에서 숙제 검사 같은 걸 받는답
니다. 이 사람은 얼마나 착한 일을
했고, 저 사람을 몇 번이나 거짓말
을 했는지를 따져 본다는 것이지
요. 그리고 49세 때는, 숙제 검사
를 마친 사람이 이제는 슬픈 마음을 훌훌
 털어 버리고 하늘나라로 잘 가라고 부처
님의 좋은 가르침을 들려 준다고 합니다.

바로 그 날 저는 아주 뜻밖의 선물을 받
았습니다. 목탁 소리도 스님의 엄불 소리
도 사그라들자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한 아주머니
는 문밖으로 나가시다가는 다시 돌아와서
저에게로 다가오셨습니다. 아이의 엄마였
습니다.

아이의 엄마는 한참 동안 저를 뚫어
지게 바라보시더니, 문득 생각이 난 듯이 가

방에서 뒤편을 꺼냈습니다. 조그마한 신
발이었습니다. 바닥에 흠도 묻지 않은 새
신발이었습니다. 아마도 그 아이는 신발
도 한 번 신어보지 못하고 하늘나라로 간
것 같았습니다.

그 동안 저는 많이 유명해졌습니다. 아
랫 동네에 사는 사람은 물론이고 아주 멀
리서도 저를 보기 위해 일부러 찾아오기
도 하는 걸요. 요즘 아이들 말로 인기 ‘짱’
이랍니다.

내일이 부처님 오신 날이래요
잠자려는데 시키면 사람이
법당으로 살금살금 다가가더니
부처님을 트럭에 옮겨 싣고
나를 부처님과 함께 묶었어요

갑자기 절 마당이 분주해집니다. 길다
란 막대기를 세워 줄을 매고는 연등을 걸
기 시작합니다. 무슨 일일까? 귀를 쫓긋
세웠더니 금세 궁금중이 풀립니다. 내일
이 ‘부처님 오시는 날’이라잖아요. 글썄,
나도 멍달아 기분이 좋아지기 시작합니
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나도 연
등을 달고 싶었는데 그럴 수 없다는 사실입
니다. ‘아기 부처님도 기분 좋으시죠?’ 하고 말
을 건넵니다.

부처님 맞을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색
색깔 연등이 마당에 가득하고, 사람들의
얼굴도 보름달 같아 보입니다. 스님도 절
마당을 두루 살피시고는 저에게로 오셔서
“아기 부처님도 기분 좋으시죠?” 하고 말
을 건넵니다.

다들 짐으로 돌아가고 저 혼자만 남았
습니다. 스님도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드셨
나 봅니다. 나도 ‘어서 내일이 왔으면 좋
겠다’고 생각하고는 잠을 자기로 했습니
다. 내일을 빨리 만나는 데는 짐을 자는 것
이 최고잖아요.

바로 그때, 절 마당 앞에 웬 트럭이 멈
추어 서더니 시키면 웃을 임은 사람이 살
금살금 법당 쪽으로 걸어갑니다. 무슨 안

좋은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시키면 사람이 법당 안
에 계시던 부처님을 안고 나오는 게 아닙
니까. 이런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 부처님
은 보통 부처님이 아니고 나라에서도 보
물로 삼은 부처님이거든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지. 마음 속으로 발만 동동 구를 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키면 사람은 부처님을 트
럭 위에 실어 놓고는 이번에는 제게로 다
가오는 게 아닙니까. 콩닥콩닥 뛰는 가슴
소리가 귀에 들릴 정도입니다. 시키면 사람
은 나를 들어올리더니 “공—” 하고는 어
깨 위로 나를 올려놓습니다. 그때 나는 간
신했던 예전에 선물로 받았던 신발을 꿸
습니다. 그것마저 잃어 버리면 아이의 엄
마가 너무 슬퍼할 것 같아서요.

부처님과 나는 트럭 위에서 밧줄로 풍
공 묶이고 말았습니다. 한참 뒤 시키면 사
람은 뒤편 아쉽다는 듯이 고개를 기울
고하는 법당으로 다시 들어 갑니다. 뒤편
더 훑쳐보는 게 분명합니다.

그 틈을 타서 나는 얼른 신발을 신어 보
입니다. 운수만을 떠나기 전에 그 아이를 대
신해서 한 번이라도 땅을 밟아 보고 싶었
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신발을 신자
마자 팔 다리가 마음대로 움직이기 시작
합니다. 나는 재빨리 밧줄을 풀고 부처님
부터 절 마당 귀퉁이의 꽃밭 속에 숨었습
니다. 그러고는 단숨에 법당으로 뛰어 들
었습니다. 역시나 시키면 사람은 법당 구
석구석을 돌아다니며 귀한 것들을 죄다

선물받은 신발을 신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예요
팔다리가 내 마음대로 움직이고
내손 닿는 나무 용 · 새가 움직여요

지 드렁드렁 끌면서 잠을 자고 있지 뭐니
까. 잠자는 그 손에 살면서 빗자루를 쥐
어 주고는 나는 다시 제 자리로 돌아가기
로 했습니다. 내가 막 돌아다니면 사람들
이 놀랄 테니까요.



그림 · 문병성

조각한 용이나 새들이, 손이 닿자
마자 살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역시 용은 멋졌습니다. 법당 안
을 한 바퀴 휩쓸기만 했는데도
시키면 사람은 기겁을 하며 줄행
랑을 놓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우습던지. 그런데 그만 그 시키면
사람은 법당 문지방을 넘다가 발
을 헛디뎠다. 패당 하고 자빠지면서 기겁
을 하고 말았습니다. 많이 고소하긴 했지
만 왠지 불쌍해 보입니다.

서둘러 법당 안을 치우고 나니
동이 터 오기 시작합니다. 어딘
가에서 부처님은 지금 이곳으로
오시고 계시겠지요.
마당을 쓸기 시작했습니다. 부
처님께서도 깨끗한 마당을 밟고
오시면 좋아하시지 않겠어요.

마당을 다 쓸고 나서 시키면
사람에게 다가가 보고는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기절했던
사람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코가
졸졸물고 있었습니.

나는 공중을 날아다니면서 법당의 친구들을 깨워...

“부처님이 어디까지 오셨나?”
언제나 새벽 같이 일어나시는 스님은
부처님께 인사를 올리러 법당으로 향합니
다.

“아니, 누가 이렇게 마당을 깨끗이 쓸었
지? 희한한 일도 다 있네.”

이렇게 혼잣말을 하시며 법당으로 다가
서던 스님은 갑자기 비명을 지릅니다. 시
키면 사람에게 걸려 넘어진 것이지요.

“아이쿠, 이게 누구야?”
잠에서 깨어난 시키면 사람은 어쩔 줄
몰라하며 스님께 꾸벅 절을 올립니다.

“아니 년, 저 아랫마을 사는 형님이 아
니냐. 오라, 네가 마당을 쓴 모양이로구나.
그런데 웬 일이나 할 줄 아는 것이라고는
말씀 부리는 것밖에 모르는 녀석이야. 하
기야 말성쟁이라고 맨날 말썽만 부리라는
법도 없지. 그래, 애꿎은 너 때문에 부처
님이 아주 기뻐하시겠구나.”

그제서야 시키면 사람의 얼굴에도 웃음
이 감돌기 시작합니다.

우스이레이키(Reiki 靈氣)가 왜 화제인가!

— 3월만 배우면 됩니다 —
— 탁월한 우주 생명에너지 이용법입니다 —
— 건강 전체를 개선하는 효과적인 생명에너지입니다 —

일본의 정통종교의 구도자 우스이 미카오(1865-1926)가 교토의 산속에서 21년간의 치열한 단식생활 끝에 본래의 영혼을 되찾고 그 (치유)를 체계화하여 레이키라고 이름지은 이래 이미 레이키는 전세계 50개국 이상에 보급 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1990년대 부터 미국을 통해 전세계로 보급 되기 시작하면서 여러 사람이 거지다 보니 본래의 내용이 빠지고 에너지의 질이 저하가 생긴 것들도 도처에서 생겨났습니다.

저(박희준)는 많은 갈래의 레이키를 공부하고 외국에서 배웠던 특이 일본에서 소수의 인원이지만 전 세계는 우스이씨 본래의 영혼(능력)을 전수할 수 있는 기법과 에너지를 전수받고 더욱 개량한 끝에 3월이라는 최단기간에 우스이 레이키 제3단계 까지 전수하는 일을 1998년 부터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3월 교육제도는 일본, 미국의 어떤 레이키 교육기관에서도 하지 못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 우스이 레이키(교육기간 3단계까지 3월, 교육비 70만원)
교육내용 : 우스이 레이키 발명법, 12지료점 치료법, 금안성 질환에 대한 원리치료법, 풍석류 치료법, 악물 음식물류에 대한 에너지주입법, 성립의 여러방면에 걸쳐서 레이키를 활용하는 법, 백의존식 레이키 특출법(본성 자성 불성) 활성화법 등.
▶ 3일간의 교육이 끝난 1개월후에는 1일간의 무료 추가 교육이 실시됩니다. 원전에너지요법, 치료법, 호르몬, 간단한 제형법등을 이때 배웁니다.
- 카루나 레이키(교육기간 2달 교육비 50만원)
카루나 레이키는 우스이 레이키를 배운분이 다음 단계로 배우는 새로운 레이키입니다. 9종류의 기공 요법에 더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교육이 끝난 1개월 후에는 카루나 레이키 제형법 등을 배웁니다.

* 현대불교신문 특지는 우스이 레이키, 카루나 레이키 10%씩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우스이 레이키, 카루나 레이키 일괄등록 103만원

현대 생활 레이키연구회 대표 박희준 (그랜드 마스터)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Reiki.co.kr>

주 소 : 서울시 동구로 신문로 27가 89-27 피어선빌딩 809호실
전화 : 02)720-5682, 720-5719, 팩스 : 02)720-5720
핸드폰 : 019-392-2557, 018-850-1680

유체이탈, 쿨달리니 각성을 위한 “무시간” 상태경험

세계 최초 빛과 소리 에너지 전수법 - 듀얼바이올비트 시스템

매가플러스 기본사항 강력한 효과를 위한 옵션

지구에너지 명상, 차크라, 육체이탈, 쿨달리니, 미간과 턱의 차크라명상, 에너지이탈, 기타 학습과 장미, 수면용 2개 프로그램 내장 (기본사항 : 본체, 녹음장치, 헤드폰, 사용설명서/미국 마이크로칩사) * 오라진동수인 (미국 오라시안사/중국OEM) * 장안경 (황간, 청색, 보라색, 순백색 /미국 마이크로칩사) * 타이머 고구 헤드폰 (미국 마이크로칩사)

세계 유일한 듀얼 바이올비트 시스템

- 매가플러스 명상기는 6개의 상채주파수를 동시에 전달시켜 주는 듀얼바이올비트 시스템을 도입하여 완벽한 이완과 무시간 상태를 가능케 하는 가장 진보된 빛과 소리 기기입니다.
- 듀얼바이올비트는 6개 상채주파수의 배합과 배열에 따라서 그 에너지 수준이 바뀌어, 빛과 소리 프로그래머의 체질을 얼마나 문자가 아닌 에너지체로 전수시키는 방식입니다.
- 매가플러스의 빛과 소리 그리고 오라진동의 진동을 수동적으로 느끼고 즐기거나 하면 되며, 동시에 사고, 감정, 육체적 반응을 컨트롤 할 수 있어 빠른 시간 내에 무시간 상태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 기타 15~120분까지 시간조절가능, 5분씩 변형(45개 프로그램 가능), 학습 및 창의력, 피로회복과 재충전, 불면증 용도로도 가능합니다.

* 전화주문시 자세한 카탈로그를 무료로 우송해 드립니다.

마인드테크 : (02) 888-2142

승복, 법복안내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여 항상 치을 이라는 지제로 변함없이 제품 생산 연구에 임하는 저희 업체에서는 부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정성껏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고급 재질에 세련된 디자인으로서 저렴한 가격으로 스님 및 불자들에게 모시고자 합니다. 부족한 점이 있으시면 많은 지도도반 바라며, 최선을 다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 애용승복 직인일품 —

준수복	1. 직삼, 바지, 조끼 W130,000	2. 동 방 W110,000	3. 두루마기 W120,000
가복	1. 직삼, 바지, 조끼 W130,000	2. 동 방 W110,000	3. 두루마기 W120,000
조끼 · 동방	1. 직삼, 바지, 조끼 W130,000	2. 동 방 W110,000	3. 두루마기 W120,000
의문동	7. 조끼, 동방 W50,000	7. 셔츠 W30,000	

해동승복 대구 고속터미널 인근 동부정류장 대구광역시 동구 신현4동 399-1 TEL : (053)741-8131 FAX : (053)741-8132 H.P : 011)549-8130 * 지역 대리점 모집

간(肝) 연구 지방간경화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 웅덩이와 비갈만한 자연산 참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재래식(기미술) 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생체내 하루를 열어줍니다.

① 다슬기 농축액 :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다슬기와 구슬참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동 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기미술에 넣고 전통방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더린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더린다. 농축액은 60도 단위로 표정합니다.

② 다슬기 기름 : 다슬기 15kg을 항아리에 넣고 쪄서 97마니를 달은 뒤 왕겨에 불을 붙여 그 열로 다슬기가 땅속에 묻어둔 흰 항아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합니다. 다슬기 기름을 만드는데 왕겨가 다 타들어 가기까지 고약 8~9이 걸립니다. 한달분은 18리터입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 됨」

자료신청 : (055) 963-9583 · 상담문의 : (055) 355-5626
산마을 토종 (민속농원)